



■ 대학구조개혁 현황과 개선을 위한 4차 토론회 예고보도(2016.06.16.)

6. 22(수), 대학구조개혁정책으로 인한 교수와 강사들의 삶을 살펴봅니다.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관련 5회 연속 토론회를 갖고 있음.
- ▲ 이번 6월 22일(수) 오후 2시, 4차 토론회에서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대학 교수와 강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볼 예정임.
- ▲ 특히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목적인 정원감축은 교수와 강사의 일자리와 직접 연결되어 대량 해고 사태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대책은 전혀 없는 상태임.
- ▲ 이번 토론회에서는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 저자 김민섭, 상지대 교수 박정원, 「진격의 대학교」 저자 오찬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임순광 선생님이 각각 대학교수와 강사의 삶에 어떻게 변화 되었는지 발제와 토론을 맡음.

6월 22일(수) 오후 2시, 사교육걱정은 대학구조개혁을 겪고 있는 대학 교수, 강사의 삶을 살펴보는 4차 토론회를 단체 대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대학구조개혁은 대학 수업의 질과 환경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 구조개혁의 목적인 정원 감축은 대학 교수와 강사의 일자리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정부의 정책대로 진행된다면 대학교수와 강사의 대량해고가 예상되지만 그에 따른 대책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과거 선망 받던 대학 강단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토론하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4차 토론회에서는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 저자 김민섭, 상지대 교수 박정원, 「진격

의 대학교」 저자 오찬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임순광 선생님께서 공동발제를 맡아 교수, 비정규직 교수, 시간강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발표해주시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대학구조개혁이 우리사회의 지식인인 대학교수와 강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토론회에 관심 있는 많은 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 행사명 : 대학구조개혁 현황 파악과 개선을 위한 5회 연속 토론회
- 주제 :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대학교수, 강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 일시 : 6월 22일(수) 오후 2시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주요 일정

일시	토론회명	■발제 □토론 (가나다순)
1차 05/11(수) 오후 2시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대학평가를 평가하다.	■ 김성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위원)
		■ 임재홍 (방송통신대 교수, 대학구조조정공대위 정책위원장)
		□ 강남훈 (한신대 교수)
		□ 안치용 (토마토 CSR연구소장)
		□ 임희성 (한국대학연구소 연구원)
2차	대학지원사업 약인가 독인가?	■ 대학 관련 전문가들 및 당사자들과의 비공식 인터뷰 및 자체 연구 등을 통해 실태를 파악한 후에, 이를 보도자료 형식으로 발표합니다.
3차 06/08(수) 오후 2시	대학구조개혁 이후 대학생들의 삶을 조망한다.	■ 이은지 (희망제작소 희망기획팀 연구원)
		□ 고원형 (아름다운배움 대표)
		□ 오규민 (한양대 총학생회장)
		□ 황선경 (경희대 학생, 전 대학생 위원회 위원장)
4차 06/22(수) 오후 2시	대학구조개혁 이후 교수, 강사의 삶을 조망한다.	■ 김민섭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 저자)
		■ 박정원 (상지대 교수)
		■ 오찬호 ('진격의 대학교' 저자)
		■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5차 07/14(수) 오후 2시	대학구조개혁법 쟁점과 대안을 모색하다. (국회 토론회 예정)	■ 김성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위원)
		■ 반상진 (전북대학교 교수)
		■ 박래형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법률자문위원)
		□ 박순준 (동의대학교 교수,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 이사장)

2016. 6. 1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위원 김성수(02-797-4044/내선번호 507)